

2007 대입 정시모집

올 정시모집 주요내용

2007학년도 정시모집 대학입학 요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난 해보다 모집인원이 7.0%(1만3천448명) 줄었다는 점이다.

또 원서접수가 한꺼번에 몰려 서머가 다운되는 일을 막기 위해 원서접수 일정을 '군'별로 나눠 마감일이 겹치지 않도록 한 것도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이다.

특히 2008학년도 입시부터는 전형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모집요강을 꼼꼼히 살펴올해 최대한 합격할 수 있도록 지원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오는 13일 수능성적 개인 통보가 끝나면 대학별 정시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수험생들은 대학별 전형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지원희망 대학의 전형요강을 미리 꼼꼼히 살핀 뒤 지원전략을 세워야 한다. 사진은 지난 1일 전남대에서 수시 2학기 심층면접 시험을 치르기 위해 대기 중인 수험생들의 모습.

전남대·조선대 등 44곳 수능 50~59% 반영

◇모집인원 = 일반학생전형에서 총 모집인원의 91.55%에 해당하는 17만1천499명을 모집하며 ▲가군 6만2천70명 ▲나군 6만1천603명 ▲다군 4만3천826명 등이다. 대학별 모집인원은 광주·전남의 경우 ▲광신대 76명 ▲광주가톨릭대 45명 ▲광주교대 498명 ▲광주대 613명 ▲광주여대 145명 ▲남부대 316명 ▲대불대 513명 ▲동신대 1천35명 ▲명신대 68명 ▲목포가톨릭대 55명 ▲목포대 848명 ▲목포해양대 315명 ▲순천대 823명 ▲영산신학대 51명 ▲전남대 3천231명 ▲조선대 1천878명 ▲초당대 413명 ▲한려대 192명 ▲호남대 811명 ▲호남신학대 86명 등이다. 이의 ▲가톨릭대 1천272명 ▲건국대 3천

명대(서울)·아주대 등 4개교 ▲80% 이상 서남대 등 10개교 ▲60~79% 목포대·순천대·동신대 등 116개교 ▲50~59% 전남대·조선대 등 44개교 ▲40~49% 광주대·광주여대 등 7개교이다. 인문사회계열은 대부분 대학이 언어·외국어·탐구 영역을 반영하며, 수리영역을 반영하는 128개 대학 중 '가'/'나'형을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117개교, '나'형만을 반영하는 대학이 11개교이다. 탐구영역을 반영하는 193개 대학 중 사회탐구만을 반영하는 대학은 24개교, 사회/과학탐구 반영 대학 28개교, 사회/직업탐구 3개교, 사회/과학/직업탐구를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은 138개교이다.

◇광주·전남대학 원서접수·전형일정

Table with columns: 대학명, 원서교부, 원서접수, 논술, 면접, 적·인성검사, 실기시험, 합격자발표. Lists dates and procedures for various universities in Gwangju and Jeonnam.

◇타지역 주요대학 원서접수·전형일정

Table with columns: 대학명, 원서교부, 원서접수, 논술, 면접, 적·인성검사, 실기시험, 합격자발표. Lists dates and procedures for major universities in other regions.

광주·전남 20개 대학서 1만 2,012명 뽑아 광주여대·광주교대 등 48곳 면접구술고사

52명 ▲경희대 1천985명 ▲고려대 3천422명 ▲국민대 1천950명 ▲단국대 2천760명 ▲동국대 2천474명 ▲명지대 1천556명 ▲서강대 896명 ▲서울여대 805명 ▲성균관대 2천188명 ▲숙명여대 1천498명 ▲연세대 2천655명 ▲이화여대 1천374명 ▲인하대 1천603명 ▲중앙대 2천792명 ▲포항공대 70명 ▲한국외국어대 2천634명 ▲한양대 3천252명 ▲홍익대 2천346명 등이다. ◇학생부·수능 반영 = 학교에 따라 학생부만 100% 반영하는 곳도 있고 수능 성적만 100% 반영하는 곳도 있다. 학생부의 경우 일반전형 인문계 기준으로 ▲100% 경동대·상명대 등 2개교 ▲50% 이상 남부대·대불대·목포가톨릭대 등 35개교 ▲40~49% 순천대·전남대 등 107개교 ▲30~39% 목포대 등 42개교 ▲30% 미만 목포해양대 등 18개교이다. 학생부 요소별 반영방법은 평어를 사용하는 대학이 91개교, 석차(백분율)를 사용하는 대학이 106개교, 평어와 석차를 같이 사용하는 대학이 10개교이다. 수능성적 반영비율은 역시 일반전형 인문계 기준으로 ▲100% 경동대·나사렛대·상

수리 '가'형(미분과 적분/확률과 통계/이산수학)의 경우 반영하는 모든 대학에서 학생이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 사회 및 과학탐구영역은 2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으며 서울대의 경우 사회탐구영역에서 국사 과목을 지정하고 있다. 자연과학계열의 경우 대부분 대학이 언어·수리·외국어·탐구영역을 반영하며, 수리영역은 '가'형만 반영하는 대학이 29개교, 탐구영역에서 과학탐구만 반영하는 대학이 30개교이다. 대학에 따라서는 수리영역과 탐구영역에서 수리 '가'형,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곳도 있다. 수리 '가'형은 반영하는 모든 대학이 과목을 학생이 자유 선택하도록 했으나 서울대 자연대와 공대는 미분과 적분을 지정했다. 또 사회 및 과학탐구영역은 2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으며 가톨릭대 의예과·연세대(서울)·울산대 의과대학·중부대 간호학과는 일부 과목을 지정하고 있다. ◇논술·면접 실시대학 = 일반전형 인문계 기준으로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21개교다. 반영비율은 ▲10% 이상 서울대·

고려대(서울)·서강대·수원 가톨릭대·인천 가톨릭대·경인교대·춘천교대 등 7개교 ▲5% 미만 건국대(서울)·경희대(서울)·성균관대·숙명여대·연세대(서울)·이화여대·중앙대(서울)·한국외대(서울) 등 8개교 ▲20% 대전가톨릭대 1개교이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의 경우 논술고사 실시 대학이 없다. 면접·구술고사는 총 48개 대학에서 실시

대학별 이색 전형

효행자·사회봉사자·전업주부·지역연고자·선원(船員)의 자녀·내신성적 우수자·자격증 소지자 등 독특한 이력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2007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의 특별전형을 노려볼 만하다. 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전국 4년제 대학의 '2007학년도 정시모집 요강 주요 사항'에 따르면 정원 내·외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1만5천826명으로 전체 정시모집 인원

선·효행자, 전업주부만 오세요

대학 독자기준 따라 81개대서 4,726명 선발 (18만7천325명)의 8.4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정원의 특별전형이 9천194명으로 가장 많고 ▲농어촌학생 142개대 5천407명 ▲실업자 고교 졸업자 102개대 3천74명 ▲특수교육대상자 44개대 556명 ▲산업대 산업체 위탁생 2개대 133명이다. 정원 내 특별전형 가운데 대학 독자기준에 따라 81개 대학이 4천726명을 뽑는다. 대학 독자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은 ▲국가(및 팀) 유공자 자선 24개대 203명 ▲학교장 및 교사 추천자 17개대 1천11명 ▲선·효행자 5개대 17명 ▲사회봉사자 6개대 74명 ▲사회

적 배려 대상자 9개대 178명 ▲소년소녀 가장 6개대 36명 ▲만학도 및 전업주부 20개대 252명 ▲수능성적 우수자 16개대 1천747명 ▲내신성적 우수자 3개대 36명 ▲자격증 소지자 3개대 48명 ▲지역연고자 7개대 209명 ▲종교인 15개대 202명 ▲체육우수자 3개대 55명 등이다. 광주 남부대는 학교장(담임·기관) 추천자, 동일계 고교 출신자, 자격증소지자 및 경시대회 입상자, 산업체중사자를 독자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학대중거자 hwangtae@kwangju.co.kr

수험생 이런것은 주의

수시모집에 지원해 1개 대학이라도 합격한 학생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또는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또 모집기간이 같은 대학,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이 같은 모집단위에는 복수지원할 수 없다.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에 이중

가·나·다 군별로 한곳씩 지원

수시합격자는 정시 지원 못해 등록할 수 없고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위반하면 합격이 취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단, 정시모집 복수지원 금지원칙은 일반대학(교육대학 포함)에만 적용되며 전문대학, 산업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학대중거자 hwangtae@kwangju.co.kr

다.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등록 및 미등록 총원과정 중의 추가등록 포함)한 학생은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원서접수가 마감된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머가 다운되는 등의 사태를 막기 위해 원서접수기간이 군별로 달라졌다는데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인터넷으로만 접수하고 창구접수는 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학대중거자 hwangtae@kwangju.co.kr

◇수능 반영비율 (일반전형 인문계)

Table showing admission ratios for various universities under the general type (humanities) category, categorized by percentage ranges (100%, 80%+, 60%+, 50%+, 40%+, 30%+).

◇수능 반영비율 (일반전형 자연계)

Table showing admission ratios for various universities under the general type (natural sciences) category, categorized by percentage ranges (100%, 80%+, 60%+, 50%+, 40%+, 30%+).

◇면접구술 반영비율

Table showing the number of universities and their respective ratios for interview and oral exam admission types.

◇논술 반영비율

Table showing the number of universities and their respective ratios for admission types requiring essays.

◇모집준별 대학명

Table listing specific university names for each admission type: 정시 '가', 정시 '나', 정시 '다'.

◇분할모집 대학명

Table listing university names for split admission types, categorized by the number of departments (가/나, 가/다, 나/다, 가/나/다).